



국 내 소 식

통상산업부, 올 여름 전력수급안정 협력강화 당부

박재운 통상산업부장관은 지난 7월 10일과 22일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사협회 등 전력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전력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그동안 준비해온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수요관리, 강화대책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점검, 정상기온시 최소한 9.6% 수준의 공급예비율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박재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능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전소 등에 대한 재점검과 수요관리 강화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전의 전직원이 수시로 전기 다소비자를 방문하는 등 범국민적인 전기소비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력유관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자율적인 절전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절전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 신규수용 사용자가 직접 신청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전기수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규수용 업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7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전국 사업소에 시달렸다.

고객이 적절한 내선시공업체에 의뢰 내선설비 등을 완료하고 전기사용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내선설비 시공내역서 및 점검표 제출을 생략하고 공사비 청구는 수용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토록했다.

현장조사는 접수후 배전부서에서 현장조사후 인입선 또는 외선을 설계하고 인입선 공사와 계기부설은 계량기 단가계약업자가 시공, 내선설비에 대한 검사는 내선점검표에 의거 한전 직원이 검사하게 된다.

한전은 고객이 직접 전기사용을 신청한 수용에 대하여 고객 직접 전기사용신청 수용임을 명시하는 고무인을 적색 날인, 처리기준 일정내에 송전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한전은 고객 직접수용 신청시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연 처리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업소는 내부 경영실적평가(고객희망일 송전을 감점건수로 처리)에 반영하고 민원발생 사유를 담당간부가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 저장기술 개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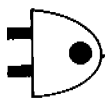
전기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지원센터는 지난 7월 14일 통상산업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연구소, 이화전기 등 관련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기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갖는 것을 필두로 한차원 높은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들어 기초적인 연구단계를 벗어나 본격도 진입을 위한 가닥을 잡아나감으로써 전기 에너지 저장기술은 앞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는 물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로 크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상산업부와 에너지자원센터, 한전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향설정, 연구관리, 사후관리, 자금지원에 매진하고 있고 국책연구소, 대학, 업체 등 관련전문가가 총출동, 플라이트, 전지전력, 초전도 전지저장 시스템 연구개발에 총전력을 경주함으로써 향후 연구결과에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지원센터 고요 전기1팀장은 「전력저장시스템은 기저발전출력인 원자력발전이나 무연탄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심야 잉여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주간 피크에 방출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으로 현재는 양수발전에 필적할만한 경



제성은 없으나 환경성과 양수입지 곤란, 원거리 저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양수발전소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제품은 인체나 차량으로부터 방출되는 원적외선(열선)을 검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다.

냄새로 화재 감지하는 경보기

일본 NTT는 화재가 발생하는 즉시 냄새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 NTT가 독자개발한 고분자 물리흡착막을 부착한 8개의 수정진동자는 보통은 10MHz에서 진동하지만 발열한 케이블이나 나무, 종이 등에서 냄새가 풍기는 가스가 발생하면 내장된 흡착막이 이를 감지, 진동수가 변한다.

진동수가 변하면 미리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가스의 정체를 분석, 규명하게 된다.

이때 화재로 판단되면 전원을 절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화재를 방지하게 된다.

해외소식

절전형 에어컨 선보이

일본 도시바사는 최근 가정용 절전형 에어컨 「트윈DD」 95년형 모델 4기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의 특징은 압축기용 직류모터 및 열교환기를 개량하여, 기존 제품보다 비용과 전력을 13%나 절감시켰다.

또한 환기 및 문개폐 등의 실온변화에 재빨리 반응하는 「GA제어」를 업계 처음으로 채택했다.

시판되고 있는 본체 표준가격은 20만~31만5천 엔이다.

열선센서 부착된 방향검지용 스위치

일본 삿푸너스 저팬사는 보행자나 저속차량의 방향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지용 스위치를 개발했다.

회원소식

○ 박희택 상근이사 차남 준규군 결혼식:

9월 2일(토) 12시30분 목화예식장(강남역)

○ 대전지부 손문영회원, 라이온스 309-E지구 대전중앙라이온스클럽 제21대 회장 취임('95. 6. 8)

◆ 인물 포커스 ◆

벨금속공업의 이희평사장(전기기사협회 총남지부장)은 세계시장에 「손톱깎이는 한국산이 최고」라는 명성을 구축했다. 벨금속이 만드는 손톱깎이는 지난해 8백여만달러어치(2천4백여만개)가 수출돼 세계시장의 40~50%를 점유했다. 중국산 가짜 「BELL」상표가 나돌지 않았던 80년대에는 점유율이 70% 이상이었다.

이사가장이 7년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손톱깎이를 수출하던 삼화역기공업사에 입사한 이래 25년간 손톱깎이에만 매달려왔다. 이사장은 입사후 「OEM은 남의 장사」라는 주장을 밀어붙여 74년부터는 「BELL」이라는 자체상표로만 수출하게 됐다. 이사장은 국제전시장에서 한산한 구석을 배정받는



동 출대를 받았던 BELL표 손톱깎이를 불과 5년여만에 세계제일의 브랜드로 올려놓았다.

꾸준한 기술축적과 품질관리 덕분이었다. 이사가장이 경영하는 벨금속은 현재 20여가지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직업훈련교사, 공인중개사 등 5~6개 자격증을 따낼만큼 역척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대학에 개설되는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최고산업 전략과정 등 공부하는 곳이면 빠놓지 않고 찾아다닌다.

이사장은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스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바람에 도급 열처리 등을 담당할 기능공을 구하지 못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냈다.